

## 한국 대학의 개발교육 사례분석

### : KOICA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을 중심으로\*

박환보(朴桓甫)\*\*  
최정운(崔禎允)\*\*\*  
김안나(金安拏)\*\*\*\*  
길혜지(吉惠芝)\*\*\*\*\*  
정연내(鄭然內)\*\*\*\*\*  
우한솔(禹韓솔)\*\*\*\*\*

#### 논문 요약

이 연구는 KOICA의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이하 이해증진사업)을 중심으로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교육 교육과정의 내용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대학의 개발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KOICA ODA 교육원의 내부 자료와 국가 수준의 고등교육 통계자료를 통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교과목 개설 및 수강생 현황을 개괄하고, 2013년도 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각 대학 교육과정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수강생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여, 수강생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이해증진사업을 통해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개발교육이 확대되어 왔으나, 여전히 대학 수준에서의 개발교육 기회는 부족하였으며, 특히 지방소재 대학일수록 교육기회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둘째, 이해증진사업 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지만, 개발교육의 내용이 국제개발협력 인지제고 및 홍보에 편중되어 있고 다양한 개발교육의 이슈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이해증진사업 교육

\* 이 논문은 KOICA ODA 교육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박환보 외(2014). KOICA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종합평가 연구. 한국교육개발원·KOICA ODA 교육원'의 일부 내용과 자료를 기초로 학술논문의 성격에 맞추어 수정·보완한 글임.

\*\* 제1저자,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hwanbo@cnu.ac.kr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jychoi@kedi.re.kr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akim@ehwa.ac.kr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hyeji302@kedi.re.kr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ynjung00@kedi.re.kr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edu4a11@kedi.re.kr

과정은 대학별로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강의내용의 깊이와, 강사진의 역량, 해외현장활동과의 연계 정도 등에는 대학에 따라 편차가 존재했다. 이러한 개발교육 기회의 격차는 개발교육 관련 특강, 행사 및 기관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에는 이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별 교육과정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해증진사업 교과목이 ODA재원으로 개설되어, 교과목 내용 구성 및 운영이 행·재정적 제약을 받는 태생적인 한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해증진사업 관계자와 교과목 담당교수는 개발교육의 분명한 철학과 장기적인 비전을 토대로 개발교육의 교과과정을 심화·발전시키고, 각 대학에서도 교양강좌의 개설을 통해 개발교육 기회와 저변을 확대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개발교육, 고등교육, 국제개발협력,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 I. 서론

우리나라에서 개발교육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국제이해교육부터 다문화교육, 환경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김영환, 김선영, 정지언, 2012). 그리고 최근 정부가 2015년 이후의 글로벌 교육의제 설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을 핵심 의제로 제안하면서, 개발교육은 세계시민교육을 포함하는 형태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최정윤 외, 2014). 또한 국제개발협력 이슈를 다루는 개발교육의 경우,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개발NGO 등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국민 인지 제고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개발교육에 있어 정부기관과 공교육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이태주, 김다원, 2010), 여전히 학교 밖의 비정규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영환 외, 2014).

최근에는 ODA 재원의 확대와 더불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ODA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발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id Committee, DAC) 회원국으로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ODA 재원을 2015년까지 GNI 대비 0.25%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한 추진 계획으로 삼아 수원국의 자립역량 배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왔다(윤종혁 외, 2013).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

을 갖고 있는 국민의 51%만이 정부의 ODA 공여에 대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대학생에 해당하는 19-29세의 응답자는 전체의 59.7%가 '대외원조 정보를 접해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권율, 박수경, 이주영, 2011). 이처럼 대학생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보고되고 있으나, 대학 수준에서 국제개발협력이나 개발 이슈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는 교과목 수강 기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개발교육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KOICA ODA 교육원은 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실무자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발 NGO의 개발교육도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신상협, 박수현, 이지연, 2013).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KOICA는 2009년부터 대학 내에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 개설을 지원하여, 대학생에게 이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국제개발협력 인지강화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대학교 지원 사업은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이하 이해증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15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sup>1)</sup> 이해증진사업은 연간 10억 규모로, 매년 사업 선정 대학에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학부 교양과목 또는 전공과목 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윤종혁 외, 2013: 49-50). 이해증진사업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학생의 인지도 제고 및 후속세대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앞으로도 사업의 확대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김철희, 2011; 신상협 외, 2013; 윤종혁 외, 2013). 그러나 이해증진사업을 통해 개설되는 개발교육 관련 교과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설되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이 연구는 이해증진사업을 중심으로 대학 내에서 개설된 개발교육의 내용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대학의 개발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답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해증진사업을 통한 대학의 개발교육 교과목 개설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교과내용, 강사, 해외현장활동의 구성은 어떠한가? 셋째, 교과내용, 강사, 해외현장활동에 대해서 수강생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 현황 자료, 사업계획서, 수강생 강의만족도 평가 결과, 대학정보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이해증진사업의 교과목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과 담당 교수, 강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개발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교육의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이해증진사업의 지난 5년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이해당사자의 목소리에 주목하는 일은 대학에서 개발교육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1) ODA 교육원 홈페이지(<http://idea.koica.go.kr/course/CourseListPartner.do>) 2015년 1월 30일 인출

## II. 이론적 배경

### 1. 개발교육의 개념과 현황

개발교육의 역사와 개념은 고미나와 조철기(2010)의 연구에서 정리한 바 있다. 개발교육은 1946년 유네스코의 창립과 함께 시작된 국제이해교육이 효시라 할 수 있고, 1960년대 북유럽 선진국의 국제봉사단체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신생독립국을 원조하기 위한 자국민의 공적 지원을 촉구한 것이 첫 번째 양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이르러 개발도상국의 빈곤 원인이나 사회경제적 특성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형태의 교육이 시작되었고, 1980년부터 성장을 위한 경제개발의 폐해,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 등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이후에도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와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지향점이 조금씩 변화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개발교육을 두 가지 범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국민에게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여 원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세계의 일부로서 개발도상국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 평등, 사회정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개발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점차 공교육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Bourn, 2015).

우리나라의 개발교육도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에서 개발교육의 개념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국제이해교육을 시작하였고 다문화교육, 환경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 등으로 세분화되어 진행되고 있다(김영환 외, 2012; 김은혜, 2013). 그리고 그 개념이 점차 국제개발협력 관련 이슈를 다루는 방식을 포괄하면서 확장되었고,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외교부, KOICA, 개발 NGO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국민 인지 제고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이태주, 김다원, 2010). 특히 2010년 KOICA ODA 교육원의 설립으로 정부차원의 개발교육 기반이 구축되었고, 민간에서는 기부를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 실태를 보여주는 교육에서 점차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개발교육이 발전하였다(신상협 외, 2013; 이태주, 김다원, 2010).

개발교육 대상도 일반 시민에서 점차 학생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학교교육 체제 내에서 가르쳐야 할 핵심 영역으로 강조되고 있다(김영환 외, 2014). 이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과서에는 이미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내용이 1997년부터 게재되기 시작했다(김영환 외, 2014). 그리고 2007년부터 ODA에 대한 교육은 더욱 강화되어 세계화, 상호의존성, 지구촌 다양성, 지속가능개발, 개발이슈, 국제사회의 노력이 정규교육과정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이태주, 김다원, 2010). 그러나 개발교육의 내용이 주로 다양한 지구촌 문화에 집중되어 있으며, 개발교육의 다른 핵심 요소들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이태주, 김다원, 2010).

이처럼 한국에서 개발교육의 개념은 국제사회의 발전 동향과 마찬가지로 보다 포괄적인 국제 이슈를 다루는 형태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개발교육을 제공하는 주체별로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강조점 또한 다르다. 무엇보다 대학 수준에서 국제사회의 개발이슈 등과 관련한 교과목의 수강 기회는 매우 부족하며, 초중등학교에 비해서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대학의 자율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학이 개설한 개발교육 관련 교과목의 현황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 2. 대학에서 개발교육의 필요성

대학에서 개발교육의 필요성은 우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학생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대학 수준에서 관련 교과목의 수강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국민의 절반이 정부의 ODA 공여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권을 외, 2011). 그리고 예비교사의 개발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비교사의 ODA에 대한 인식은 4점 만점에 평균 2.0 정도였으며, 특히 MDGs나 국내의 ODA 현황과 정책에 대한 인식은 평균 1.6-1.7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김영환 외, 2014). 비록 일부 집단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대학생의 ODA에 관한 지식수준 또한 낮았을 뿐만 아니라, 원조규모 확대에 대한 찬성 정도도 낮게 나타났다(김영환 외, 2014). 국제개발협력 인식 제고와 관련한 연구들은, 한 국가의 개발협력정책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원조에 대한 여론의 인지 정도와 지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다(김은미, 김지영, 이재은, 201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조사 결과는 대학생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학에서 개발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또 다른 접근은 대학이 국제개발협력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는 관점이다. 국내에서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전문 인력 양성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김철희 외 2010; 전승훈 외, 2012; 최민경, 2008).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발협력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정부부처 및 원조전담기관, 개발NGO, 기업이나 민간컨설팅 업체, 연구소·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을 활용하는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이 인력 양성의 핵심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김철희, 2011; 김철희 외, 2010). 특히 학부 수준에서는 개발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저변 확대를 강조하였다(김철희, 2011). 이에 이해증진사업도 도입 초기에는 대학생의 국제개발협력 및 ODA에 대한 이해 증진이 주요한 목적이었으나, 점차 국제개발협력 분야 진로 탐색 및 실무역량 강화, 분야별·지역별·이슈별 연구역량 강화로 사업의 목적이 확대되었다(KOICA, 2014). 그리고 사업내용에도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 개설

외에 해외현장학습 지원이 추가되었다(KOICA, 2014).

이처럼 대학 수준에서 개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대학생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낮은 인식과 국제개발협력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대학의 자율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학이 개발교육의 필요성을 어떠한 관점에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개발교육의 내용도 다르게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발교육을 국제개발협력 이슈에 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교육과정의 내용과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대학의 개발교육 운영 현황에 관한 연구

먼저, 대학 수준에서의 개발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부 연구들 속에서 국내 대학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전승훈 외(2012)에 따르면, 2011년부터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등은 KOICA ODA 교육원과 연계하여 대학의 정규과정에서 국제개발 관련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 중에서 서울대학교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국제개발협력 전공을 직접 설계하는 ‘학생설계 전공과정’이며, 학기별로 한 강좌 이상의 과목이 개설된다. 또한, 국내 및 해외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율연구 및 국제개발협력 워크숍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연세대학교는 정경대학의 글로벌행정학전공 국제개발트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양 및 전공, 그리고 해외현장 활동과 특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승훈 외(2012)는 위의 두 학교가 학부 수준에서 최초로 개설된 국제개발협력전공이나 기본적인 과목만을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이태주(2011)은 대학원 수준에서 국제협력 및 국제개발협력 학위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경희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사례를 연구한 바 있다. 이 두 학교는 2007년부터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국제개발협력 학위과정 개설을 2009년까지 국고 지원을 받았으며, KOICA의 지원으로 30여 개발도상국의 유학생을 초청해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태주(2011)에 따르면,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DC) 학위과정은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과목과 분야별 실무과목으로 분류된다. 각 3학점으로 구성된 필수 교과목으로는, ‘국제화증진 워크샵,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영어 I, 영어 II, 개발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개발경제학, 응용경제학, 기능심화(6대 분야 개인지도), 지구촌의 주요의제, 개발협력 보고서’ 등이 있다. 그리고 전공 선택 과목은 ‘개발프로젝트 실무분석, 지역연구(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개발협력 사업전략, 지역경제개발, 사회개발과 빈곤감축, 국제기구론, NGO와 시민사회’ 중에서 3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국제대학원 개발협력 석사과정 프로그램(M.I.S in Development Cooperation)은 ‘국제협상전략, 계량분

석'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며, 전공필수 4과목 '여성과 개발, 세계화와 개발, 국제정치경제, ODA이론과 실제' 중 3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전공선택 과목은 국제경제학, 국제관계학, 국제개발이슈 과목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대학원의 개발협력 전공 박사과정 프로그램도 석사과정의 교과목과 유사하다. 이 두 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태주(2011)는 개발도상국 지역에 대한 지식과 연구에 대한 기초 없이 원조행정가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기능적 지식이나 포괄적 개발이슈를 다루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제학과 국제관계학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에 접근하는 목적 및 방법, 국제개발학이 지향하는 개발의 가치 및 철학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

그 밖의 사례를 보면, 국제대학원이 설치된 고려대학교, 아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동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학과 혹은 국제개발협력전공을 개설하여, 국제개발협력 이해, 개발경제학, 시민사회 등의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김철희, 2010).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2010년부터 대학원 협동과정으로 글로벌교육협력 전공을 개설하여, 석·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대학교에서 국제개발협력학도가 학부 학위과정으로 2012년에 개설되었다.

다음으로, 'KOICA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없으며, 몇몇 개발교육이나 대학생의 국제개발협력 인식을 다룬 일부 연구에서 이해증진사업이 언급되고 있다(신상협 외, 2013; 이태주, 김다원 2010). 신상협 외(2013)는 국내 개발교육 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해증진사업이 20여개의 민간단체의 프로그램과 함께 한국 개발교육 발전의 분기점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사업의 규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다른 개발교육 기관간의 협력관계가 미진한 상황에서도 이해증진사업을 통해 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과 학계 간의 파트너십이 구축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양수(2014)는 국제개발협력 강좌가 대학생의 공적개발원조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준실험설계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생의 공적개발원조 인식 정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 교양강좌를 통해 수강생은 ODA 인지도, 지지도 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으며, ODA 참여의사 또한 수강 전후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설문문항의 정교성이 떨어지고 비교집단의 사전·사후조사가 없어 수업의 순수한 효과를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해증진사업으로 개설된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다룬 연구는 2012년 KOICA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2012년도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성과사례집'이 유일하다(KOICA, 2012). 사례집은 2012년 사업에 참여한 39개 대학 중 15개교 담당교수의 강의운영과 학생의 해외현장활동에 대한 수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대학별로 사업요약(학교 및 학과 소개, 교과명, 교육인원, 교과설명, 기대효과 등)과 교육과정(학과, 학점, 교과목표, 채점방식, 교재, 주차별 강의주제, 강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 대상 대학이 전체의 약 40%에 불과하고,

대학별 교육과정에 관한 정보도 제한적이다. 이처럼 이해증진사업에 관한 연구는 양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사업 설명이나 성과 보고에 그친 경우가 많아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개발교육의 내용과 그 운영 실태를 충실히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 III. 연구 방법

#### 1. 분석 자료

이 연구는 이해증진사업을 통해 대학 내에 개설된 개발교육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수강생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KOICA ODA교육원의 내부 자료를 통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 개설 및 수강생 현황을 분석하였다. 내부 자료에는 사업계획서, 사업선정 및 심사 결과, 종료평가 및 회계정산 결과 등 이해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각종 공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및 이에 대한 수강생의 인식은 사업의 계획부터 종료까지 일련의 자료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2013년도 사업에 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2013년에 개설된 43개 대학의 91개 교과목이다. 91개 교과목은 각각 15주 혹은 16주차 강의로 구성되었고, 1주를 단위로 한 강의 횟수는 총 1,396번이었으며, 이 중에서 국정공휴일 등으로 수업이 없었던 36번을 제외한 1,360번의 강의를 분석하였다. 이 자료와 함께, 사업 참여 대학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는 각 대학이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게시한 2013년도 대학정보공시자료를 활용하였다.<sup>2)</sup>

그리고 수강생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 참여자는 교육과정 운영이 성공적으로 평가 받은 7개 대학에서 선정하였다. 초점집단면담 참여자는 가장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집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윤택림,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2013년도 사업에 참여한 43개 대학을 대상으로, KOICA 사업선정 및 관리자 평가 결과, 수강생 강의평가 결과, 대학별 교육과정(사업 계획서, 해외현장활동 계획서, 강의평가 결과, 사업성과 보고서)을 심층 분석하여 각각 상위 3개 대학, 총 9개 대학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 중에서 중복된 대학을 제외한 7개 대학의 수강생을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7개 대학을 기능별로 보면, 연구중심대학이 3곳, 교육중심대학이 2곳, 교육연구병행 대학이 2곳이었으며<sup>3)</sup>, 재학생이 10,000명이 넘는 대규모 학교는 총 4곳이었다. 면담 참여자는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도에 이해증진사업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을 모집하였으며, 전체 7개 대학에서 수강생의 전공과 해외현

2) 대학알리미 (<http://academyinfo.go.kr/>)

3) 대학의 유형별 분류표 기준(교육인적자원부, 2005: 25)

장활동 경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총 27명을 선발하였다. 자세한 면담 참여자의 정보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대학별 면담조사 참여자 현황

소속 대학	성명	소속 학과(부)	입학연도	
수도권	A대학 (대규모, 연구중심II)	a	정치외교학과	2008
		b	행정학과	2009
		c	행정학과	2009
		d	경영학부	2010
	B대학 (대규모, 교육연구병행)	a	기계공학과	2009
		b	정치외교학과	2009
	C대학 (대규모, 연구중심I)	a	정치외교학과	2007
		b	언론정보학과	2012
		c	언론홍보영상학부	2013
		d	경제학과	2013
		e	보건관리학과	2011
	D대학 (대규모, 교육연구병행)	a	법학부	2012
b		영어영문학부	2012	
c		경제학부	2008	
E대학 (중소규모, 교육중심)	a	전기전자통신공학부	2007	
	b	산업경영학부	2010	
	c	메카트로닉스공학부	2012	
	d	전기전자통신공학부	2010	
비수도권	F대학 (중소규모, 교육중심)	a	사회복지	2009
		b	사회복지	2011
	G대학 (대규모, 연구중심II)	a	식품영양	2008
		b	경영학과	2008
		c	정치외교학과	2009
		d	심리학과	2011
		e	영어영문학과	2013
		f	첨단기계전공	2009
		g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2008

## 2. 분석 방법

먼저, 이해증진사업의 국제개발협력 교과목 개설 현황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단 수와 평균 수강생 수를 대학의 소재지를4)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연차별 사업예산규모를 함께 분석

하였다. KOICA ODA 교육원의 2014년 사업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이해증진사업은 지역 간 개발교육 격차를 우려하고 있으며, 공공성 측면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지방에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의 소재지를 현황 분석의 축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의 내용과 운영 실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2013년에 43개 대학에서 제출한 각 교과목의 강의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분석하였다. 각 대학의 강의계획서는 강의 목적 및 개요, 수업일정 및 내용, 평가방법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목의 현황을 파악하는 도구로 적합하다(정혜령, 2007). 교육과정 분석틀은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국제개발협력 교과목 교육과정 분석틀

분석 영역	분석 내용
기본 정보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목명</li> <li>• 개설 학기(1학기, 2학기)</li> <li>• 수강 인원(단위: 명)</li> </ul>
	교과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성: 개론, 특성화, 연계</li> <li>• 이수구분: 교양선택, 교양필수, 전공선택, 전공필수, 대학원</li> <li>• 인정학점: 2학점, 3학점</li> <li>• 평가방법: 상대평가, 절대평가, Pass/Fail</li> </ul>
교과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 이론, 주제, 분야, 지역, 기타활동</li> </ul>
강사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 담당교수, 학계, 전담기관, 정부부처, 민관기관, 기타</li> </ul>
해외봉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국가</li> </ul>

세 번째로, 2014년 7월 말부터 시작하여 9월 초까지 면담을 실시하였다. 집단별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고, 면담조사 내용은 면담참여자의 동의를 얻어서 녹음을 하였으며, 이후 전사한 내용을 분석 자료로 삼았다. 그리고 수강생 집단에 대한 면담은 각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대학별로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2013년 이해증진사업 교과목 수강생의 경우, 강의를 수강한지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 면담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기억의 왜곡 혹은 망각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초점집단면담을 통해 수강생의 인식을 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sup>5)</sup> 초점집단면담은 피면담자의 생각이나 주장에 대해 또 다른 피면담자가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반박하는 등 개인 면담에 비해 다양하고 포괄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다(이현철, 김영천, 김경식, 2013). 또한, 다양한 연구 집단을 평가하고,

4) 수도권(서울·경기), 비수도권(기타 지역)

5) 추가적으로, 강의를 개설한 책임교수 5명과 직급별 KOICA 파견 강사 4명을 면담하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수강생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9명의 면담 결과는 해석 및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질문지를 발전시키고, 연구결과들에 대한 풍부한 해석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유용성이 있기 때문이다(윤택립, 2013).

면담 자료의 분석과 해석은 자료 수집과정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분석 내용을 토대로 2차 자료 수집과 분석 및 해석 등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였다. 우선 면담자료를 읽으며 국제개발협력 교육에 대한 수강생의 인식을 정리하는 개방적 코딩을 실시하고, 수집된 모든 자료에 이 주제 목록을 적용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연구 진행과정에서 주제목록을 수정해가는 선택적 코딩을 수행하였다.

## IV. 분석 결과<sup>6)</sup>

### 1. 이해증진사업 국제개발협력 교과목 개설 현황

이해증진사업은 2009년 17개 대학의 사업단을 시작으로 2013년 까지 총 136개의 사업단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다년간 사업에 참여한 대학을 제외하면 총 57개 대학이 지난 4년 동안 최소 한번 이상 KOICA의 지원을 통해 개발교육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또한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2009년 약 3억 2천만 원에서 2013년 13억 규모로 대체로 증가하였다. 누적 수강생 수는 2013년 기준으로 총 16,373명에 이른다.

<표 3> 이해증진사업 국제개발협력 교과목 개설 사업단 및 수강생

연도	수도권			비수도권			합계			사업예산 (천원)
	사업단 (개)	수강생 (명)	평균 수강생	사업단 (개)	수강생 (명)	평균 수강생	사업단 (개)	수강생 (명)	평균 수강생	
2009	6	583	97.2	11	1,024	93.1	17	1,607	94.5	327,658
2010	17	1,292	76.0	13	1,026	78.9	30	2,318	77.3	1,012,767
2011	20	1,610	80.5	13	1,346	103.5	34	2,956	86.9	874,748
2012	22	2,002	91.0	17	1,974	116.1	39	3,976	101.9	1,152,808
2013	21	2,613	124.4	22	2,903	132.0	43	5,516	128.3	1,312,439
합계	86	8,100	94.2	76	8,273	108.9	163	16,373	100.4	4,680,420

주 : 이해증진사업이 2009년 2학기에 시작되어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1년 단위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도별 사업예산 규모의 편차가 나타남.

그러나 사업단별로 평균 수강생수를 보면, 2009년 94.5명에서 2013년에는 128.3명으로 교육 수

6) 분석 결과표에 제시된 표는 KOICA ODA 교육원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요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재지별로 이해증진사업에 참여한 사업단과 수강생의 수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수도권(서울·경기)의 사업단 수가 비수도권에 비해 많았지만, 2013년부터는 이러한 지역별 차이가 다소 완화되어 지방소재 대학의 참여가 꾸준히 증가했다.

## 2. 이해증진사업 국제개발협력 교과목의 내용과 운영 실태

### 1) 교과목 운영 방식

2013년에 이해증진사업을 통해 개설된 국제개발협력 관련 강의를 대상으로 대학별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우선 과목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총 91개 교과목 중 56개 과목은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혹은 ‘국제개발협력 이해와 실천’ 등의 이름으로 개설되어 개론 수준의 내용을 다루었고, 29개 교과목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개관뿐만 아니라 NGO, 복지, 리더십, 아시아, 법 등 특정 주제를 함께 다루었다. 그리고 3개 대학에서는 1학기에는 기초과정, 2학기는 심화과정으로 서로 연계성을 갖고 구성하였다. 교과구분의 경우, 학년과 이수규정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양선택’으로 개설된 교과목이 62개, 교양과목 이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교양필수’ 중 하나로 개설된 교과목이 7개였다. 그리고 학부생의 전공과목으로 개설하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전공선택’ 교과목이 17개, 졸업 전공학점 이수를 위해 필수로 수강해야하는 ‘전공필수’ 교과목이 2개였다. 또한 대학원의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교과목이 3개가 있었다. 자세한 교과목 개설 현황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2013년도 이해증진사업 국제개발협력 교과목 개설 현황

구분	과목 특성			이수 구분				총계	
	기본*	특성화**	연계***	교양선택	교양필수	전공선택	전공필수		대학원
강좌 수	56	29	6	62	7	17	2	3	91
(%)	(61.5)	(31.9)	(6.6)	(68.1)	(7.7)	(18.7)	(2.2)	(3.3)	(100.0)

\* :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개론에 해당하는 교과목

\*\* : 국제개발협력 개관을 기본으로 NGO, 구호 등 특정 주제를 비중 있게 다루는 교과목

\*\*\* : 1학기(국제개발협력 기초 교과목)와 2학기(국제개발협력 심화 교과목)를 연계하여 개설

두 번째로, 이해증진사업의 국제개발협력 교과목의 인정학점은 11개 대학 22개의 강좌가 2학점으로 개설되었고, 75.8%에 해당하는 69개 강좌가 3학점으로 개설되었다. 그리고 81.3%에 이르는 74개 강좌가 상대평가를 하고 있었고, 10개 강좌가 절대평가, 나머지 7강좌가 Pass or

Fail(P/F, 이수/미이수)로 평가하고 있었다.

<표 5> 2013년도 이해증진사업 국제개발협력 교과목의 인정학점 및 평가방법

구분	인정학점		평가방법			총계
	2학점	3학점	상대평가	절대평가	P/F*	
교과목 수	22	69	74	10	7	91
(%)	(24.2)	(75.8)	(81.3)	(11.0)	(7.7)	(100.0)

\* : 일정 수준 이상의 출석과 성적을 받으면 학점을 인정하되 별도의 성적을 부여하지 않음.

세 번째로, 이해증진사업 국제개발협력 강좌 수강인원은 2013년 기준 총 5,516명이었으며 한 교과목 당 평균 59.9명이 수강하였다. 한 강좌 당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대형 강의는 총 6개였으며, 특히 G대학의 경우 수강생이 300명인 교양선택 강좌를 개설하기도 했다. 그리고 56%에 해당하는 51개 강좌가 각 50~100명 사이의 수강인원을 보였다. 한편, 대학원 및 학부 전공 개설인 32개 강좌는 대부분 수강인원이 50명 미만이었다. 자세한 값은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2013년도 이해증진사업 국제개발협력 강좌 수강인원

구분	수강인원				최소	최대	평균
	50명 미만	50~100명	100명 이상	총계			
강좌 수	32	51	6	91	8명	300명	59.9명
(%)	(35.2)	(56.0)	(6.6)	(100.0)			

## 2) 교과목의 내용

다음으로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론’, ‘주체’, ‘분야’, ‘지역’, ‘기타’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1,360번의 강의 중에서 국제개발협력 기본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443회(32.6%)이었으며, 지역 252회(18.5%), 분야 208회(15.3%), 주체 137회(10.1%) 순이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론 영역에서는 전반적인 경향, 이슈, 쟁점 등을 112회에 걸쳐 가장 많이 다루었고, 국제개발협력의 일반적인 이론은 89회, 공적개발원조(ODA)를 57회 강의하였다. 다음으로 주체 영역에서는 전반적인 기구 및 기관을 56회 다루었으며, NGO를 40회, 원조 전달기구를 21회 다루었고, 사회적 기업을 8회 강의하였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에서는 빈곤을 단일 주제로 37회 다루었으며, 이어서 보건 및 의료 25회, 교육 24회, 환경·인구·자원을 23회, 농수산업 및 새마을운동 20회, 젠더 및 아동 19회 등으로 많이 다루었다. 그 밖에 분야로는

외교·무역(11회), 구호·난민(9회), 다문화(9회), 복지(8회), 분쟁(5회), ICT·전자통신(4회) 등의 주제가 있었다. 그리고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사례 83회를 제외하고는 아시아 국가가 66회로 가장 많았고, 아프리카 36회, 중남미 18회 순으로 강의 시수가 많았으며, 그 밖에 지역으로는 선진국(9회), 북한(8회), 중동(3회)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타활동으로는 중간·기말고사 132회, 학생 팀프로젝트 발표 86회, 토론 및 세미나가 38회, 해외현장활동 준비 및 경험공유가 25회, 진로 소개가 13회가 있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교과목 내용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 대학은 이론적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자세한 2013년도 이해증진사업의 국제개발협력 강의 내용의 비율은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2013년도 이해증진사업 국제개발협력 교과목의 내용 구성

구분	이론*	주제**	분야***	지역****	기타	합계
수도권	260 (36.8)	57 (8.1)	95 (13.4)	125 (17.7)	170 (24.0)	707 (100.0)
비수도권	183 (28.0)	80 (12.3)	113 (17.3)	127 (19.4)	150 (23.0)	653 (100.0)
강의 내용 (%)	443 (32.6)	137 (10.1)	208 (15.3)	252 (18.5)	320 (23.5)	1,360 (100.0)

\* : 국제개발협력 개관, 역사, 쟁점 등을 포함한 이론

\*\* : 국제기구, 원조전담기관, NGO, 사회적기업 등을 포함한 주제

\*\*\* : 빈곤, 보건, 젠더, 아동, 교육 등 국제개발협력 분야

\*\*\*\* :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국제개발협력 지역

다음으로 이해증진사업의 국제개발협력 강좌의 강사 구성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2013년도 이해증진사업 국제개발협력 교과목의 강사 구성

구분	담당교수	전담기관	학계	정부부처	민간기관	기타	합계
수도권	414 (58.6)	92 (13.0)	144 (20.4)	18 (2.5)	29 (4.1)	10 (1.4)	707 (100.0)
비수도권	298 (45.6)	122 (18.7)	166 (25.4)	13 (2.0)	42 (6.4)	12 (1.8)	653 (100.0)
계 (%)	712 (52.4)	214 (15.7)	310 (22.8)	31 (2.3)	71 (5.2)	22 (1.6)	1,360 (100.0)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담당교수의 강의비율이 약 52.4%정도이며, KOICA와 EDCF와 같은 원조전담기관의 파견강사가 22.8%에 이른다. 이어서 대학의 동료교수 및 연구기관의 파견강사 등

학계에 해당하는 강사 비율이 15.7%, NGO 등 민간기관 강사가 5.2%, 기업 등 기타 외부강사가 1.6%이다. 이처럼 외부강사의 비율이 높은 것은 강사 초빙 예산을 이해증진사업을 통해 지원받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원조전담기관의 강사비율이 높은 것은 KOICA에서 자체적으로 파견한 강사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 대학은 담당교수의 강의 비율이 58.6%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반면에, 비수도권 대학은 45.6%로 전체 평균에 비해서 낮다. 반면에 전담기관 강사의 강의 비율이 18.7%로 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이해증진사업 해외현장활동 대상 국가를 살펴보면, 1학기에 29개국, 2학기에 40개국 총 69개 국가였다. 그리고 97.2%에 해당하는 69개 국가가 아시아에 속해 있었으며, 아프리카 국가 방문이 2회 있었고 중남미지역 방문은 없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이 15회(21.7%)로 가장 많았고, 캄보디아 11회(15.9%), 필리핀 10회(14.5%), 미얀마 9회(13%), 라오스 7회(10.1%) 순으로 방문 횟수가 많았다.

<표 9> 2013년도 이해증진사업 국제개발협력 교과목의 해외현장활동 대상 국가

대상국가	1학기	2학기	합계	비율
네팔	1	2	3	4.3%
라오스	3	4	7	10.1%
몽골	3	-	3	4.3%
미얀마	3	6	9	13.0%
방글라데시	-	1	1	1.4%
베트남	5	10	15	21.7%
스리랑카	-	3	3	4.3%
인도네시아	-	2	2	2.9%
중국	-	2	2	2.9%
캄보디아	7	4	11	15.9%
태국	-	1	1	1.4%
필리핀	7	3	10	14.5%
아프리카				
트완다	-	1	1	1.4%
에티오피아	-	1	1	1.4%
합계	29	40	69	100.0%

이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은 각 사업단마다 지원되는 재정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현장활동이 아시아 국가에 편중된 것은 교육과정과의 연계라기보다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1학기보다 2학기가 많은 것은 동남아시아 국가를 방문하기에 좋은 기후가 한국을 기준으로 동계 기간이 적합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3. 교육과정에 대한 수강생의 인식

#### 1) 교과 내용에 대한 인식

교과 내용에 대한 수강생 인식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나 해외경험, 사전 지식 등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났다. 국제개발협력 개론 수준의 사전 지식을 갖고 있는 일부 수강생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론을 배우기를 기대했지만, 대부분의 수강생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교양강좌로 인식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이나 해외봉사활동과 같은 현장 경험에 관한 정보 습득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이는 대학생의 개발교육 수요가 주로 특정한 전공에 국한되지 않는 교양과목에 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김영환 외, 2014). 그러나 수강생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부 교육과정 내에서 배우기 어렵다고 말한다. 국제개발협력의 특정 분야 및 지역에 관한 강의는 일부 대학에서 사회학, 인문학, 지역학, 그리고 외국어 관련 학과의 전공강좌로 개설되거나, 심화된 내용으로 대학원의 수준에서 개설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제대학원 교육과정도 정치학, 경제학 등이 주류를 이루며 국제개발협력은 극히 일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업 말고는 개발협력을 알 수 있는 수업이.. 정치외교학 쪽에서는 전혀 없고, 국제관계학 같은 수업에서 언급을 해주시긴 하는데, (한 학기 동안) 한 시간 정도? 한 시간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학 커리큘럼 자체가 정치 쪽으로 많이 몰려있어요. NGO 수업도 들어봤는데 사회학으로 접근을 하지 개발협력 쪽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더라구요. (C대학 학생 a)

수강생의 교과 내용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수강생이 교육 내용보다도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학습 기회를 얻었다는 것 자체를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대학생의 개발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에 비해서 교육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강생은 내용과 무관하게 강의를 수강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수강생은 교과목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수업이 아니면 국제개발협력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의 개발교육 기회는 ODA 교육원의 강좌와 일부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특강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기회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소재 대학생의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주제의 특강뿐만 아니라 관련 행사 및 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특히 또 지방에는 이런 쪽으로 공부하는 스터디나 이런 게 더 없거든요. 서울 쪽에는 많은데. 지방에서 이쪽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몇 명 알고는 있는데, 하고 싶어도, 지방에서는 없어서 못하거든

## 요. (G대학 학생 c)

이처럼 지방 소재 대학생에게는 학내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교양 강좌가 개발교육의 거의 유일한 기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목의 내용 구성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서도, 최소한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G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차원에서 새마을운동과 같은 특성화 분야를 제시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은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 내에서 특정한 분야가 강조되는 이유를 공감하지 못했다. 그러나 KOICA에서는 최근 들어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지역별, 이슈별 교육과정 특성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KOICA, 2014). 한국 대학은 대체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대학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별 특성화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김안나, 2011). 또한 대학특성화에 대한 개념적 혼란이 정리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대학특성화 정책 목표와 실행 간에도 괴리가 있다(최상덕, 2008). 국제개발협력 분야 자체도 다른 학문 분야와 마찬가지로 특성화 대상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국제개발협력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특성화 분야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향후 대학 내에서 국제개발협력 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된다.

## 2) 강사 구성에 대한 인식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해증진사업은 국제개발협력 전문가의 특강에 대해 강사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책임교수 외에 외부 강사의 비중이 47.6%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원조전담기관의 강사가 22.8%로 외부 강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수강생은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특히 평소에 쉽게 만날 수 없는 현장 전문가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는 강사님들. KOICA분들.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는 것도 저희는 새로운 경험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B대학 학생 b)

직접 (현장을) 갔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때까지 제가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 분을 통해가지고 실제 상황이나 어떻게 대처하셨는가에 대해 들어 좋았던 것 같아요. (G대학 학생 b)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특성상 현장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가 이론적인 지식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리고 대학생의 개발교육에 대한 관심은 주로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이나 해외봉사활동과 같은 현장 경험과 관련된 것이지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대학 차원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수의 학생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떠한 방법으로 동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보조차 얻기가 어렵다.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는 강사님들”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생이 국제개발협력 현장의 전문가에게 이러한 지식을 얻고 싶더라도, 실제로 이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수강생은 교과목이 자신과 국제개발협력의 전문가를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외부 강사와의 소통을 강조하기 때문에, 외부 강사의 교육 역량이나 전문 분야의 중복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많은 대학의 사업 책임교수가 교과목의 관리운영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고, 특강 주제만 합의를 할 뿐, 세부적인 내용을 전적으로 외부강사에게 맡겨버리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강의 내용에 중복이 나타나기도 하고, 주차별 내용도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았다.

사실 강의마다 연결이 잘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강의 하나 하나는 굉장히 뭐 어떨 때는 알차고 어떨 때는 제 기대에서 좀 벗어나고 그랬지만.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강의 16주차 모든 강의를 보면 흐름이 연결이 잘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통일된 주제가 잘 안 보였다는 말이에요. 강의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강의로 주고자 하는 최종적인 결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약했다고 생각해요. (D대학 학생 a)

처음에는 다 다른 분들이 온다고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처음에 종이를 나눠줄 때. 근데 아무래도, 예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똑같은 분이 조금 많이 오셨었어요. 저는 좀 다른 분을 기대를 했거든요. 코이카에서도 그 분이 일하시는 거랑 다른 분이 일하시는 거랑 일의 업무가 다르고, 업무 내용이 다르고. 여러 번 오시니까 깊이 들어가는 건 좋은데 다양한 분야를 더 보고 싶다, 뭐 이런 거. (F대학 학생 b)

그리고 강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주로 비수도권 소재의 수강생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대학의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외부강사의 초빙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강사로 외에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하지만, 지리적인 접근성 때문에 외부 강사가 지방보다는 수도권 대학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1-2명의 외부 강사가 다른 내용을 수차례 강의하는 경우도 많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체적인 교육 내용의 구성과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대학 특성별로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책임교수의 역량과 외부 강사초빙에는 편차가 존재

하며, 이러한 차이가 대학 소재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강사 구성과 역량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수강생의 국제개발협력 이해도나 강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이러한 대학별 편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 3) 해외현장활동에 대한 인식

이해증진사업은 수강생의 해외현장활동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국제개발협력의 현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반적으로 교과목의 내용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지식, 개념, 이론 등을 개괄하고, 현장 실무자의 특강을 통해 현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교과목의 내용은 주로 개론 수준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나 분야, 이슈 등에 대한 학습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학기 수업을 통해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하계·동계 방학 기간에 저개발국을 실제로 방문하여 다양한 현장 활동을 수행한다. 그러나 면담결과에 따르면, 수강생들은 수강 신청 단계에서 해외현장활동을 수업과 연관된 활동이라기보다는 해외봉사활동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 대학생들의 해외봉사활동 참여가 확대되는 속에서, 교과목 수업을 통해 자신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

해외 프로그램 보내주는 게 한번 가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솔직히 제일 큰 목적은 그것을 가려고 신청을 했었고요. (E대학 학생 a)

13년도 1학기 때부터 해외봉사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일단 2학기 때 학교 공지에 이 과목이 신설되고 해외봉사기회까지 준다는 공지를 보고, 좀 더 관심이 있어 지원하게 되었어요. 해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신기한 그런 것도 있고, 직접 느껴보고 싶어서. (G대학 학생 f)

그렇지만 사업단에 지원되는 재정의 제약으로 인해, 해외현장활동은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담당교수들은 수강생 중에서 일부 학생을 선발해야 하지만,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과 교과목을 연계하는 형태로 운영하기도 한다. KOICA에서도 대학 자체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장려하고 있다(KOICA, 2014). 그러나 해외현장활동이 교육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해외 체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은 교과목 개설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해외현장활동 참여자들도 교과목의 내용이 해외현장과 연계될 때,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가 보다 깊어졌다고 인식했다. 특히, 수강생들은 팀 프로젝트나 기말 과제 등 강의 외의 다양한 활동이 해외현장활동과 연계 될 때, 학습 효과가 높다고 인식했다. 자신들이 심층적으로 탐구한

지역이나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된 이슈에 관해 관계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세금 건잡아요. 그 세금 건어서 최소 요구조건 0.7%인데 못 쓰고 있다, 뭐 그런. 그래서 일단 직접 가서 제 눈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나 저희는 정부기관을 많이 갔어요. 저희는 코이카 사무실을 갔었고요, 과학기술부도 갔었고, NGO같은 곳 45군데 갔었고. (A대학 학생 b)

그러나 해외현장활동과 교과목의 연계 정도는 담당 교수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담당교수가 국제개발협력 사업 경험이 있거나 현장 방문기관과 사전 교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과목 개설 단계부터 해외현장활동과 연계한 활동을 기획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단순한 저개발국가 체험 수준에 머물 수 있다. 해외현장활동에 대한 수강생들의 인식은 저개발국가에 가볼 수 있는 기회 정도로 시작하지만, 해외현장활동이 교과 내용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계되느냐에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로 발전하기도 한다.

## V. 논의와 결론

이 연구는 KOICA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을 중심으로 대학 내에서 개설된 개발교육의 내용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대학의 개발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관해서 논의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증진사업을 통해 개설된 개발교육 강좌는 고등교육수준에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교육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대학생의 개발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개발교육 기회의 지역 간 격차를 어느 정도 감소시켰으나, 강좌 당 학생 수나 교육의 내용과 같은 질적인 측면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했다. 특히 교육과정 상의 지역 간 차이가 대학특성과 재학생 수요를 반영한 결과라기보다는 책임교수의 전문성이나 강사 섭외의 용이성과 같은 현실적인 요인에 기인했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해외현장활동의 경우에도, 예산의 제약으로 수업 내용과 연계되지 못하고 소수의 인원이 아시아 국가를 단기 방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둘째, 이해증진사업으로 개설된 교과목의 내용은 KOICA와의 높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과목의 내용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교양 강좌로서, 기본적인 '이론'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한국의 ODA나 KOICA에 관한 내용도 중요한 강의 주제로 다루었다. 그리고 책임교수 외에 외부 강사의 비중이 절반에 달했고, 그 중에서도 원조전담기관 출신의 강사 비율이 높게 나타

났다. 이러한 특징은 KOICA의 재정지원을 받아 개설된 강좌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수강생과의 면담결과에서 대학생의 국제개발협력 교과목에 대한 요구가 단순히 KOICA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이러한 개발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한 수강생의 인식은 교육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관심, 경험, 지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일부 학생은 본 강좌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기 기대하였지만, 이 분야를 처음 접한 학생은 개론 및 교양 수준인 본 과목에 만족했다. 또한, 다양한 강사 구성은 국제개발협력의 실제 사례를 여러 전문가로부터 들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각 주차별 수업 사이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수강생은 공통적으로 교과목의 내용보다도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학습 기회를 얻었다는 것 자체를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특히 이러한 인식은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수강생에게서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학의 개발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관해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전체 대학 수에 비해 이해증진사업을 통한 강좌 개설 대학 수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2013년까지 총 163개 사업단이 참여하였지만, 동일한 대학이 여러 해에 걸쳐 지원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총 57개 대학에서만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었고, 이는 2013년 기준 전체 고등교육 기관 433개교의 약 13%에 불과하다(한국교육개발원, 2013).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의 유형별로 보면 일반 4년제 대학이 주를 이루며, 기능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은 지난 5년 동안 4개 사업단만이 참여하였고, 이는 전체 163개 사업단의 약 2.5%에 불과하다. 또한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통해 개설된 국제개발협력 강의를 수강한 학생의 비율은 해당 대학의 전체 재학생에 비해 낮기 때문에, 다년간 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경우에도 개발교육 수요가 여전히 존재했다. 가장 많은 사업단과 수강생을 지원한 2013년에도 수도권 4년제 일반대학의 수강비율은 약 0.43%에 불과했고 비수도권의 경우도 약 0.3%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현황은 이해증진사업이 대학에서의 개발교육 기회를 확대하고는 있지만, 국내 대학생에게 관련 교과목 수강의 기회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둘째, 교육과정의 내용과 강사 구성에 있어서, 정부의 ODA 정책이나 KOICA에 대한 인지도고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개발교육에 대한 정의는 시대나 기관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세계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개발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지식, 기술,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영환 외 2012: 426). 따라서 개발교육은 세계화, 지구촌다양성, 개발이슈 및 국제사회의 노력, 지속가능한 발전 등이 조화롭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태주, 김다원 2010). 게다가 2015년 이후 글로벌 교육 의제 설정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세계시민교육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최정운 외, 2014). 이해증진사업도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명시적인 목표로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학

의 교육과정에서는 ODA에 대한 이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이나 원조전담기구에 관한 내용의 비중도 높았다. 그리고 강사 구성에서도 담당교수를 제외하면, 원조전담기관의 강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신제도주의자는 조직구조나 행동이 조직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인정되는 합리화된 규범과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다(장덕호, 2009).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KOICA의 재원으로 개설된 교과목은 개별 대학이 재학생의 특성이나 요구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KOICA라는 외부의 압력이나 규범에 의해서 이식된 것이다. 즉 KOICA의 재원으로 개설된 강좌라는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서, 국제개발협력 이슈를 다루는 방식이나 그 외에 개발교육의 내용을 거의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국제개발협력 교과목의 세부내용이 대부분 대학에서 거의 유사한 형태로 개설되고 있지만, 강의내용의 깊이, 강사진의 역량, 해외현장활동과의 연계 정도는 대학별 편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편차의 원인은 크게 사업 책임자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전문성과 대학 소재지의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사업 책임자가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전공했거나 경험이 풍부한 경우에는 책임자가 주요개념이나 쟁점을 직접 다룰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ODA 교육원의 권장도서나 KOICA 과전 강사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면담결과에 따르면, 사업 책임교수 중에는 권장도서의 내용조차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외부 강사별 교육과정의 중복 문제를 극복하거나 보충설명 등에도 한계를 갖고 있다. 반면에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업책임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기초하여 보다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거나, 교과 내용과 해외현장활동을 연계시키는데도 수월하다. 또한 해당 분야에서 권위 있는 외부강사를 초빙하는데도 용이했다. 또 다른 요인인 대학 소재지와 관련하여, 비수도권 소재 대학은 지리적인 접근성 때문에 우수한 외부강사를 초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강의 내용 구성이나 운영에서도 수도권 대학보다 담당교수의 전문성에 따른 교과목의 대학별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대학별 역량 차이가 결국에는 수강생의 국제개발협력 이해도 제고나 강의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에 있어 대학별 편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향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라고 하겠다.

이처럼 이해증진사업을 통해 개설된 대학의 개발교육 교과목은 대학생의 국제개발협력 이슈에 관한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학 내의 거의 유일한 개발교육 기회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을 개발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심화, 발전시켜 나갈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개발교육의 목적과 내용 등에 관한 논의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개발교육도 국제개발협력의 인지 제고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향후 대학의 개발교육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정부 정책 목표 달성을 넘어서, 개발교육의 분명한 철학과 장기적인 비전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의미 있는 발견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우선 가용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서 심층 분석 대상을 2013년도에만 한정했기 때문에, 기존에 참여했던 대학이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나 신규 참여한 대학의 동기 등을 분석하지 못했다. 둘째, 개발교육과 관련한 국내 정책 동향이나 KOICA 내부의 사업 기조 변화 등을 상세하게 다루지 못했다. 셋째,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교수나 학생 등 개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대학 내 교육과정 개설이나 운영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조직 내의 역학 관계를 상세하게 다루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점은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5). 대학 특성화 추진 방안.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통계 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 고미나, 조철기(2010). 영국에서의 글로벌학습을 위한 개발교육의 지원과 지리교육.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8(2), 155-171.
- 권울, 박수경, 이주영(2011).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및 국제 비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안나(2011). **고등교육사회학**. 서울: 학지사.
- 김영환, 손미, 김선영, 이승진(2014). 예비교사의 공적개발원조와 개발교육에 대한 인식연구. **교사교육연구**, 53(1), 47-63.
- 김영환, 김선영, 정지언(2012). 공적개발원조와 개발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연구. **교사교육연구**, 51(3), 423-439.
- 김은미, 김지영, 이재은(2011). **한국 ODA에 대한 국민인지 제고 전략**. 경기: 한국국제협력단.
- 김은혜(2013). 국제개발협력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김철희(2011).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와의 중장기 직업교육훈련 협력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철희(2010).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과 직업전망. ODA Watch 제26차 ODA 월례토크, 1-10.
- 김철희, 백성준, 최동선, 김상태, 유성상(2010).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전략: 2.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http://www.academyinfo.go.kr)
- 신상협, 박수현, 이지연(2013). 개발교육의 현황분석 및 선진화 방안 연구-한국과 영국의 개발교육 현황·정책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31(3), 29-49.
- 윤종혁, 이석희, 박환보, 김경희, 김이경, 최동주, 손희권(2013). **글로벌 교육협력연구·사업의 중장기 비전 및 계획 수립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윤택림(2013).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강원: 아르케.
- 이양수(2014). 지구촌개발협력의 이해와 실천 교양과목이 대학생들의 공적개발원조(ODA)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준실험설계를 통한 평가. **한국지방자치연구**, 15(4), 181-202.
- 이태주(2011).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과 인류학적 지역지식의 접목. **직업능력개발연구**, 14(1), 173-194.
- 이태주, 김다원(2010). 지리교육에서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개발교육의 방향. **대한지리학회**

지, 45(2), 293-317.

이현철, 김영천, 김경식(2013). **통합연구방법론**.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장덕호(2009). 대학입학사정관제 제도화 과정 분석 연구: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의 적용. **교육행정학연구**, 27(3), 121-144.

전승훈, 조정윤,곽재성, 배성일, 손성애, 김형곤(2012).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자격제도 도입방안 연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정혜령(2007). 대학수업계획서의 실증적 분석과 모형개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최민경(2008).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최상덕(2008). **아태지역 고등교육 협력 방안 정책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최정윤, 김진희, 박환보, 박주형, 유성상, 조우진, 김태균(2014). **Post-EFA 세계교육회의 의제 개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Bourn, D. (2015). *The theory and practice of development education: A pedagogy for global social justice* NY: Routledge.

KOICA(2014). **2014년도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가이드라인**. 성남: KOICA ODA 교육원.

KOICA(2012). **2012년도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성과사례집**. 성남: KOICA ODA 교육원.

KOICA ODA 교육원. <http://idea.koica.go.kr/course/CourseListPartner.do>

\* 논문접수 2015년 2월 2일 / 1차 심사 2015년 3월 6일 / 게재승인 2015년 3월 16일

\* 박환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hwanbo@cnu.ac.kr

\* 최정운: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LA 교육학과에서 고등교육으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 E-mail: jychoi@kedi.re.kr

\* 김안나: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UCLA에서 교육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akim@ehwa.ac.kr

\* 길혜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 E-mail: hyeji302@kedi.re.kr

\* 정연내: 서강대학교 법학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에서 국제협력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 E-mail: ynjung00@kedi.re.kr

\* 우한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행정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 E-mail: edu4all@kedi.re.kr

## Abstract

## The Case Study on Development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focused on Development Awareness Program of KOICA\*

Park, Hwanbo\*\*  
 Choi, Jeung-yun\*\*\*  
 Kim, Anna\*\*\*\*  
 Kil, Hyeji\*\*\*\*\*  
 Jung, Yeon-nae\*\*\*\*\*  
 Woo, Hansol\*\*\*\*\*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courses in development education offered by 57 Korean universities that participated in the "Development Awareness Program" of KOICA from 2009 to 2013, thereby suggesting how to improve development education. To achieve this goal, this research analyzed the status of course offerings and enrollment in development education, using the KOICA ODA data and the national statistical data of higher education. This research also analyzed characteristics of curricular of development education courses, drawn from the final reports prepared by 43 Korean universities that participated in the 2013 KOICA program.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students' perspectives on the course offering including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the curriculum in development education as well.

Findings from this research show that the development education courses through the KOICA program have contributed to enhancing college students' awarenes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Yet, learning opportunities are still limited, particularly at the universities located in the Non-Seoul Metropolitan Area.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development education courses are limited in that they do not fully address diverse issues of international develop cooperation. Lastly, while most of the curricula displayed high level of similarities, the depth of the courses and the level of expertise of lectures still vary across

\* A preliminary version of this paper was 'Park, H. B. et al(2014). A study on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Development Awareness Program of KOICA. KEDI·KOICA' supported by KOICA

\*\* First Auth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wanbo@cnu.ac.kr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jychoi@kedi.re.kr

\*\*\*\* Ewha Womans University, akim@ewha.ac.kr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hyeji302@kedi.re.kr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ynjung00@kedi.re.kr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edu4a11@kedi.re.kr

universities.

These discrepancies among universities reflect limited funding resources and information available for the universities located in the Non-Seoul Metropolitan Area. These discrepancies also partly result from that development education courses are offered at universities mostly through a limited channel including the KOICA program.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goals and visions of development education as well the curriculum of development education should be elaborated. It is also suggested that individual universities make efforts to expand learning opportunity of development education by opening new development education courses as a part of liberal education.

Key words: development education, higher educati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Development Awareness Program of KOICA